



햇불을 든 사람들



저레의 땅을 딛고 선 흰 고무신 계훈제 3

1964년 5월 20일 오후 1시, 동숭동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축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열렸다. 삼천 여명의 대학생과 천여 명의 시민이 문리대 교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두건을 쓰고 죽장을 든 네 명의 학생이 시커먼 천을 덮은 관을 메고 입장했다. 민족적 긍지를 배반하고 굴욕적 한일회담의 즉시 중단을 엄숙히 요구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오후 2시, 김지하(당시 서울대 미학과 4학년)가 작성한 조사 '시체여'가 문리대 교정

에 올려 퍼졌다.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낫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네 주검의 악취는 '사꾸라'의 향기가 되어……. 생전에도 죄가 많아 욕만 먹던 시체여! …절망과 기아로부터 해방자로 자처하는 소위 혁명정부가 절망과 기아 속으로 민족을 함멸시키기에 이르도록 한 너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 종잡을 길 없는 막연한 정치이념, 끝없는 혼란과 무질서와

굴욕적인 사대근성, 방향 감각과 주체의식과 지도력의 상실, 이것이 곧 너의 전부다. 시체여! 우리 삼천만이 모두 너의 주검 위에 지금 수의를 덮어주고 있다. …… 새하얀 수의를 감고 훌훌히 떠나라, 시체여!”



문재인 목사묘소에서.
왼쪽부터 백기완·계훈제 선생, 문익환 목사 모친, 고 문익환 목사(1987.7.10)

조사를 들으며 계훈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박정희는 자신이 시체가 된 느낌이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계훈제는 함석헌 선생과 함께 조국수호협의회에 참가하여 굴욕외교 반대투쟁에 앞장섰다. 마침내 6월 3일, 굴욕외교에 반대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전국에 퍼지자 박정희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말했다. 기나긴 겨울공화국의 시작이었다. 수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감옥으로 끌려가야만 했다.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이 한창이었다. 1963년에 케네디가 암살되자마자, 미국은 베트남 침략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미군은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박정희에게 파병을 요구했다. 박정희는 내심 파병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1966년, 파병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최선의 조건을 찾아야만 했다. 박정희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차지철한테 소장파 의원들을 규합하여 월남파병반대안을 국회에 상정하도록 배후조종했다. 악역을 맡은 차지철은 열심히 뛰었다.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규합하고 국회연설을 통해 월남파병의 부당성을 주장해 나갔다. 차지철

의 맹활약과 야당의 반대로 월남파병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자 박정희는 차지철을 불러 그쯤에서 파병반대운동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을 모르고 있던 미국은 한국 국회의 파병반대 움직임에 당황하여,

한국군의 월남파병에 관한 협정에서 양보를 많이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박정희는 민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위선양, 우의 증진, 집단 안보 등의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결정했다. 계훈제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월남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반대운동에 나섰다. 함석헌 선생, 장준하 선생과 함께 반대운동에 뛰어들었지만 박정희의 막무가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영구집권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굴욕적인 한일조약과 월남파병에서 마련한 독재권력은 발악적으로 현행 헌법의 3선 금지 조항을 개악하기에 이르렀다.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막아버리고 정권의 부패를 가중시키게 될 것은 뻔했다. 함석헌 선생은 해외에서 반대를 표명하며 운동을 시작하였고, 계훈제는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양심적인 지식인과 정치인을 포함하여 수개월 동안의 투쟁은 독재권력의 폭력 앞에 좌절되고 말았다.

계훈제는 함석헌 선생과 함께 긴 겨울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노력했다. 함석헌 선생의 사회 비판 활동, 공동체운동, 정치참여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이 '씨알의 소리'로 결집되었다. 함석헌 선생의 사회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 민족주의, 이외에 간디의 비폭



민통련 의장 대행으로 활동할 당시의 계훈제(1985.12.9)

력, 무저항, 평화사상 등이다. 계훈제는 송산농장에서 일하고 구화고등공민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이스라엘의 협업농장과 같은 공동노동, 공동생산을 통해 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함석헌 선생은 개인과 전체를 한 가지로 인식하였다. 개체와 전체는 하나다. 개체로서 개인의 각성 및 자아 확립과 함께 전체 안에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계훈제는 함석헌 선생의 이런 사상에 전면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씨알의 소리’ 활동

함석헌 선생은 1970년 4월 19일에 ‘씨알의 소리’를 창간하여 씨알사상을 사회전체에 전파하는 사회운동을 일으켰는데, 계훈제는 여기에도 동참했다. 박정희에게 ‘씨알의 소리’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강제 폐간을 결정했지만, 법원에 의해 폐간 결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1972년 7월 4일에 남북한 당국은 국토 분단(國土分斷)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金英柱)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외세

(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계훈제를 비롯한 지식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민중들은 7·4공동성명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집권으로 가는 음모에 불과했다.

1974년에 박정희는 마침내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영구집권의 발판을 보다 확실히 마련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 수많은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1975년에 장준하는 유신헌법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본부의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어서 1975년 8월 17일에 장준하는 포천 약사봉 등산길에서 원인 모를 사고로 한 많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준하의 죽음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대륙 천지를 누비던 젊은 날의 민족 독립 투쟁, 자유·공화 양당의 독재에 맞서 싸운 불굴의 민주항쟁, 적수공권으로 『사상계』를 창간하여 민족의 혼란기에 그 진로를 밝힌 뛰어난 식

견, 가난한 자·애통하는 자의 편에서 고통을 함께 한 남다른 인간애, 당신은 이 시대의 선각자로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겼다. …… 아, 장준하, 그 이름은 당신이 사랑하던 이 민족과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

계훈제는 장준하의 묘비문을 읽으면서 속으로 흐느껴 울었다. 의문의 사고로 죽었지만, 장준하는 박정희가 암살한 것이 분명했다. 계훈제는 인생 전부를 걸고 박정희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1976년에는 3·1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구약학자였던 문익환 목사마저 민주화투쟁에 동참하게 되었다. 문익환 목사에게 있어 장준하는 동생 문동환 목사의 친구가 아니었던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민주화운동세력과 민중들의 끊임없는 투쟁에 박정희 독재세력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1979년에 부산에서 시작된 항쟁은 결국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의 심장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1979년 10월 26일이었다. 계훈제는 기나긴 겨울공화국이 끝났다고 환호했다. 감옥으로 갔던 동지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12월 12일에 위장결혼식 사건을 통해 계엄령에 항거하면서 민주화운동세력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널리 알렸다.

처절한 도피생활

하지만 서울의 봄은 잔인했다.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이 서울의 봄을 짓밟기 시작했다. 계훈제는 기약 없는 도피생활로 들어갔다. 신촌 이화여대 뒤 봉원사로 가는 언덕길의 3층집에 피신했었지만, 그 집 주인이었던 송교수가 기관에 연행되는 바람에 회기동 제일



삼각동 전개된 사무실 앞에서 범민족대회 예비회의(1969.3.1)

교회 윤방웅 목사의 다락방으로 옮겨 갔다. 그러나 다락방도 안전하지 않았다. 기관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계훈제는 고민 끝에 아현동 친구를 찾았다. 건설부 말단 사무관인 김용겸의 집으로 갔지만, 대가족이 함께 사는 곳이라 은거지로는 아주 부적당했다. 옆집이 수색당하는 위험을 넘기며 간신히 열흘이 지나갈 무렵, 김용겸이 송교수를 데리고 왔다. 송교수는 보안사 분실에 간혀 조사를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 송교수는 계훈제를 데리고 다시 봉원사 언덕길의 3층집으로 갔다. 계훈제는 그 집의 천장에다 은신처를 마련했다. 비닐 벽과 물통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새롭게 은거생활을 시작했다. 수도 검침원이나 전기 검침원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천장 위의 물통 옆에 끼어 차단된 상태에서 유일한 정보 전달 기구는 자그마한 라디오였다. 라디오를 통해 동지들이 체포되는 것과 군사재판을 통해 내란음모죄로 사형까지 선고되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꼬박 다섯 달을 천장에 있던 계훈제는 암의 급습을 받았다. 현기증과 기력 감퇴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궁리 끝에 함세웅·김승훈 신부를 통해 입원을 알선해달라고 송교수에게 부탁했다.



“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계훈제는 순동의 현장을
지키려 애를 썼지만,
평생 따라다닌 병마를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

일주일 뒤에 송교수를 만났다. 송교수는 자수를 권유했다. 계훈제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다시 깨어나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송교수는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계훈제는 경련을 일으키며 발악했다. 5개월 이상이나 계속된 밀실의 인고와 고통이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 헛되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전두환 깡패한테 꼬리를 내리고 자수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계훈제의 강력한 반대에 송교수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시 천장에서 은거생활이 시작되었다.

12월이 왔다. 윤보선 선생의 부인인 공덕귀 여사의 쪽지가 전달되었다. 천주교 대구 교구 소속 요양원에 입원실이 마련되었다는 것이었다. 계훈제는 마침내 천장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다. 서울을 떠나 대구로 내려가던 중에 부정맥도 심했고, 호흡곤란도 일으켰다. 평택에 있는 어느 작은 의원으로 무작정 들어갔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곳은 산부인과 병원이었다. 의사한테 계훈제는 현상금 500만원이 걸린 내란 음모 수배 자라는 것을 고백했다. 그래도 의사는 입원을 결정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파선암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아마도 계훈제가 유일할 터였다. 1982년 포고령 위반과 내란음모사건 관련으로 투옥되면서, 2년여에 가까운 만신창이의 처절했던 도피생활은 끝나게 되었다.

재야의 대표적 인물

환갑을 넘긴 계훈제는 1984년에 민주통일국민회의 부의장을 맡으면서, 재야 공개운동단체의 얼굴 노릇을 하며 민주화운동을 계속했다. 1985년에 25개 재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이 모여 태어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부의장으로 활동했지만, 건강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다. 민통련 회의에 나가기 위해서는 처남의 승용차를 얻어 타야만 했다. 회의에 참가해서도 두 시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계훈제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화운동이라면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오히려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는지도 모른다. 계훈제는 처남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디든지, 투쟁이 있는 곳이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반드시 참가했다.

1985년 5월 3일, 전국 각지에서 군사독재 타도를 위해 인천으로 몰려 왔다. 그날 계훈제도 인천에 있었다. 전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인천항쟁은 1980년 5월 18일 이후, 얼음장 밑에서 흐르던 투쟁의 물줄기가 마침내 대지를 적시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그 항쟁으로 민통련 의장인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대거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계훈제는 민통련 의장 대행으로 활동하면서, 마침내 6월항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6·10항쟁 주도

계훈제는 1987년 민통련 의장대행으로서 6·10항쟁을 주도한 성공회 대성당에서의 농성을 이끌어갔다. 그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항쟁의 들불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 마침내 6·29 항복선언을 받아내게 되었다. 6월항쟁에 이어서 노동자들의 7·8·9월 대투쟁도 이어졌다. 계훈제는 노동자들이 싸우는 곳에도 빠짐없이 참가했다.

투쟁의 나날 속에 정신 없이 직선제 대통령 선거는 준비되었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김대중, 김영삼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계훈제는 문익환 목사 등과 함께 후보단일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서로 자신들이 승리한다는 괴상한 믿음을 전제로 누구도 후보를 양보하지



삼각동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무실에서(1985.10.16)

않았다. 결국 민주화운동 세력은 독재세력에게 뼈아픈 일침을 당하고 말았다. 민중의 저항과 승리를 기대 중, 김영삼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독재세력에게 순순히 헌납하고 말았던 것이다.

계훈제는 절망했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 또 다른 투쟁을 준비했다. 1989년에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상임고문과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공동의장으로, 1991년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상임고문으로 일하며 후배 운동가들의 힘이 돼 주었다. 계훈제는 범민족대회에도 참가하면서 통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통일운동 세력이 양분되는 슬픔을 지켜봐야만 했다.

일흔이 훨씬 넘은 나이에든 계훈제는 운동의 현장

했다.

계훈제에게는 세 가지의 꿈이 있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정착이었고, 둘째는 겨레의 자존을 드높일 민족 재통일이었고, 셋째는 일체의 침략적 외세로부터의 민족자주 실현이었다. 슬프게도 세계의 꿈 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계훈제는 그 꿈을 끝내 보지 못하고, 1999년 3월 14일에 영면했다. 하지만 계훈제는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꿈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을 지키려 애를 썼지만, 평생토록 따라다닌 병마를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1995년에 고 장준하 선생 2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을 끝으로 공식활동을 접어야만 했다.

끝나지 않은 꿈

계훈제는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부분에서 명확히 실현되고 내면화되어야 하는 것, 민중의 천부적 생명권의 보장,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독재에 대한 저항의 권리 등이 완전히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었다. 또한 민족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외세와 그에 호응하는 일체의 정치적 세력을 청산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재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



정도상

1960년 경남 함양 출생
소설 『십오방 이야기』, 『그대여 다시 만날 때까지』, 『푸른방』 등 창작집 『친구는 멀리 갔어도』, 『아메리카 드림』 등
2003년 4월 19일 장편소설 『누망』으로 제17회 단재상 수상